

언약전쟁 (여호수아 6:1-21)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니카라과 선교를 잘 하고 돌아왔다.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오늘 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기다. 언약궤를 따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이 오늘 메세지이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냥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무너졌다. 잊지 마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Nobody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전부다 자기 살기 바쁘다. 나쁘게 아니다. 다 그런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 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뿐이다. 니가 거기서 나오는 답은. 그 말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옆으로 눈 돌리면 안된다. 눈 돌려봐야 소용없다. 시간만 낭비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전도자로 부르셨다. 미국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신자들은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되어간다. 말 많고, 그런데 내용은 별로 없다.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의 남은자로 부르셨다. 아직도 미국 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남아 있다.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살려야 한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해가야 한다. 전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성경에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써놨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것을 미국에 전달해라. 남미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이다. 방법도 말씀해주셨다. 아주 간단하다. 복음을 계속 말하면 된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 또 시간표가 남아 있지만 복음 없으면 시간표도 없다. 만일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고 교회가 사탄화하면 하나님이 미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어느 나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복음운동 해야 한다. 다시 이 복음의 불을 당겨야 한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조건은 하나이다.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전도뿐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것이다. 인생에 놀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에 놀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것에 갇혀서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없다. 10월에 캠프를 할건데, 계속 복음을 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하튼 시간표에 따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다가 제자가 발견되어지면 할 일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제자도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누리서 스스로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신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누림이 있으면 발전한다. 영적 발전이 지속된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출발이다. 그런데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발전하고 깊어져야 한다. 누림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알고만 있으면 그 귀중한 것이 거기에 그냥 있다. 누리면 기도도 인생도 전도도 자꾸 깊어진다. 오늘 하나님의 메세지는 언약궤, 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니 앞의 모든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메세지이다. 중요한 것이다.

1.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10절을 보면 아무말도 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 돌라고 하였다. 답이다. 안되어지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따라 도는 것은 언약이 내게 언약으로 잡히면 그것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언약이 잘 안 잡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은 기도인데, 그리스도인데, 안 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가 깊이 잡히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세지이다. 아무말도 필요 없어. 따라가기만 해. 강력한 메세지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있다는 것은 사단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박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두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당할때에는 많은 다른 메세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면 사단은 아무 힘이 없다는 메세지이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니가 잡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 니것이 되었던 안되었든 상관없다. 따라가. 그러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방해 못한다. 말씀 따라가고 잡으면 거기서 계속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다. 그러다 시간표가 되면 사단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 로마서 16:20절에 사단이 속히 니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너는 너의 인생을 계속 언약을 따라 돌아라. 매일 돌고, 제 칠일 주일에는 일곱 번 돌아라. 그 날은 더 집중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말 없이 돌아라. 아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냥 언약잡고 돌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강력한 메세지이다. 언약궤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언약궤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곳에는 언약궤가 없다. 니가 만일 이렇게 내 언약으로 살면 니 인생에 답 날 것이다. 니가 만일 이렇게 살면 니 인생의 모든 여리고 반드시 다 무너진다. 전부 다 무너질것이고 만일 무너지지 않는 것은 축복으로 다 뒤집어 질 것이다. 이것이 내 권세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음부의 권세를 너를 못이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라고 처음부터 말했고, 약속했다. 니가 이렇게 살아도 정복하도록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내 백성 너는 다른 길로 살면 힘들 것이다. 이길이 쉽고 답이다. 왜냐하면 내가 니 인생을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니가 죽을 이유는 없다. 내가 이미 대신 죽었잖아. 그런데 니가 왜 죽어? 니가 왜 니 인생에게 죽어? 니가 왜 니 돈에게 죽어? 니 돈을 위하여 내가 먼저 죽었잖아, 왜 돈한테 죽어? 언약을 잡고 언약궤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모든 여리고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안 무너지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는 그 말이다. 니가 죽을 이유는 없지. 왜 죽으려고 노력하냐? 그럴 이유 없다. 니가 노력안해도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은

너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이유가 뭐든지 니가 죽거나 당하는 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 아니야. 이걸 누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쉬운 길을 두고 구태어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알겠는데 안되면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진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라. 이게 너에게 준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살면 너 반드시 성공해.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해. 승리하고 정복할거야. 너 경제 돈 정복할거야. 건강도 정복하고 전도도 정복하고 사단이 너의 전도를 막지 못하지. 그리스도.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야. 다시 한번 답 나기 바란다. 안되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언약.

2. 외쳐 부르라.

8절에 보면 언약계 앞서 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읽어보면 이 여호와와는 언약계를 말하는 것이다. 언약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제사장의 나팔소리만 들렸다. 3절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이라고 하였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둘러 성을 매일 한번씩 돌라고 하였다. 군사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말 한마디 안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만 들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1절에 뭐라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겁이 나서 문 걸어 잠고 귀족은 듯 조용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무말도 안 했다. 제사장의 나팔소리만 퍼졌다. 상상해보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왔다는 것 아닌가? 전부 귀족은 듯 조용한데,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는 소리였다.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왔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는 말 아닌가? 너희가 다 알잖아. 언약계를 따라가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 알잖아. 그 언약계가 여기에 왔다는 것이다. 나팔 소리로. 사단에게 알리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담이 녹게하고 너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날 저녁에 언약의 피, 5절에 보면 마지막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게 되어 있다. 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6일동안은 아무 말 없이 언약계를 따라가라. 마지막날 제사장의 나팔소리가 길게 나오면 그 때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 성이 아주 두꺼웠다고 한다. 마차가 두 대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도 필요 없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 하나 안대고 그냥 언약계만 따라가면 그 언약의 소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과 똑같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른 종교서적, 불교, 형이상학적 높은 소리 하지만 공중에 뜬 소리이다. 성경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너도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언약잡고 기도하고, 니가 응답받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입 다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문을 여시면 땅 끝까지 크게 외치라는 것이다.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제자들이 다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말 필요없도 노력 필요 없다. 오직 언약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도 주시고 노력도

주시는 것이다.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 것이다. 이 복음 운동할 힘도 주시는 것이다. 일단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 때는 만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생명결고 이 복음 운동 하는 것이다. 크게 이 복음의 소리를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고난의 때도 있을 것이다. 문제 안 풀릴때도 있다. 그 때는 노바디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말 저말 하며 비겁하게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전부 자기 살기 바빠서 세상이 그렇다. 나는 노바디 선언하고 하나님하고 담판. 그래도 답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 사람 쳐다보고 저사람 쳐다보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나는 그런 것 안합니다. 결심하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한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배울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는 것이 나온다. 그 때 들을때는 그렇지. 신실하지. 그랬는데, 나는 계속 옆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절대 배신 안하시고 약속을 절대 뒤집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안 바뀐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뭐냐? 아무말 하지 말고 내 언약계만 따라오라. 니 문제가 뭐냐? 여리고성만 하나? 내가 무너뜨릴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또 말씀하셨다. 온 교회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쳐 부를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땅끝까지 남미까지 미국 끝까지 온 교회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그 날이 올 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혼자서 세계복음화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중요한 증거를 많이 주셨다. 가는 곳마다 항상 캠프를 하는데, 내 생각인데, 거기 있는 90% 이상이 평생 처음으로 전도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를 말해야 할지 내용도 없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예수 믿으라 하거나 교회 가자고 하지 뭐라 하겠냐?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10명 영접시킨 사람도 있고 5-6명 영접했다고 방방 뛰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60세 정도는 되어 보이는 분이, 바깥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한 30센티미터를 뛰는 것이다. 나중에 약속해보니까 힘이 됐다. 이 분이 중간에 포럼하기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미국에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 우리는 그 귀중한 복음을 안다.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리브가처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아이들에게도 말을 안 해. 아들 둘이가 원수 되어 버렸다. 남편은 완전 바보 되어 버렸다. 에서에게 안 수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지만 메시지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된다.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전도도 내 인생 해결하는 중요한 조건이 맞다. 그것과 함께 근본 뭐라고 하였냐? 니 인생은 걱정마라. 아무 말도 필요 없다. 내 언약을 따라와라. 오늘 메시지가야.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 니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로 언약에 답 나기 바란다. 하나님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 중직자 일어나기 바란다. 렘넌트도 많이 일어나서, 지금 렘넌트들 여린애 아니다. 정신차리고 미국 향해 기도하고 남미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해 되어서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